

학교 시설 개방 자치법규 정비

도교육청, 주민 편의·복지 증진 도모·학교 부담 완화 관련 조례 폐지 1건·개정 1건·교육규칙 개정 1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에 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개방 범위(안 제2조)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조)은 미개방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11조)도

강조했다.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협조 및 지원 등(안 제12조)은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담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전북도의회와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사용자 부담을 낮춰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은 덜어주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나눠주는 선생님 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총사업에 돌입한 지난달 31일 전북 지역 곳곳의 학교가 급식 지급에 차질이 생기자 전주회정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있다.

‘모두 다 꽃이야’

도교육청, 전국 최초 통합교육 교사수첩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 교사 수첩을 만들었다.

전북도교육청은 ‘모두 다 꽃이야’라는 이름의 2023 통합교육 교사 수첩 1,100부를 제작해 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14개 시·군 교사들에게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수첩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과 달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 통합학급 지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과 학급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사지도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수첩은 △통합교육 관련 업무 및 통합교육 이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미주하기 △피리예 피리를 무는 신박한 특수교육 사전 Q&A 등으로 구성됐다.

발달장애 교육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통합교사 마음가짐, 통합교육 교사용 자가 점검 목록, 장애 유형별 지도 방법,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특수교육 등 현장 기반 통합교육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았다.

전북도교육청은 2023 통합교육 교사 수첩 ‘모두 다 꽃이야’ 문구의 의미는 서로 다른 개성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관점으로 모두가 존



중받는 공존의 통합교육과 전북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 수첩 제작에는 초·중·고 통합학급(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전주예술중 재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고, 손그림 등에 직접 참여했다.

서거석 교육감도 하드커버(hard-cover) 표지에 ‘모두 다 꽃이야!’ 서체를 직접 작성하는 등 수첩 제작에 큰 관심을 쏟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통합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모두 다 꽃이야’를 준비했다”면서 “학생 개인의 다양성이 저마다의 타일함으로 천개의 꽃, 천개의 꿈이 이루어지는 더불어 미래를 여는 통합교육이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중국어학과, 대만 중원대 등에 교환학생 파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중국어중국학과는 중국 선전(심천)대학교광둥성 선전시)와 대만 중원대학교(타이완 타이베이)에 각 3명의 2023학년도 교환학생을 파견했다.

파견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6개월에서 1년이며, 이 기간에 현지에서 중국어 연수와 함께 정규 교과목 수업을 수강하면서 현지의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학기당 최대 16학점까지 인정되며 현지 수업료 면제 혜택과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도 지원된다.

이번 교환학생 파견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향후 국제교류 활성화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QS 학문분야 평가 11개 ‘세계 순위권’

농·임업, 재료과학 세계 200위권... 거점국립대 중 1위 생명과학분야, 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300위권에 랭크



전북대학교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재료과학과 농업·임업 등의 분야가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재료과학과 농업·임업 등의 분야가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평가는 QS가 세계 1,594개 대학의 학문 분야를 5개의 대주제, 54개의 세부 분야로 나눠 학계평판과 기업계평판, 논문당 인용수,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H-INDEX, 해외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IRN 등 5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것이다.

이 평가에서 전북대는 5개 대주제(예술&인문, 공학&기술, 생활과학&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경영) 중

2개 분야, 54개 세부 학문 분야 중 11개 분야가 세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54개의 세부 학문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업&임업, 재료과학 분야가 세계 200위권 초반에 랭크되며 거점국립대 중 1위에 올랐다. 생명과학 분야는 거점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300위권에 랭크되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 밖에도 기계·항공·제조공학 분야와 자연해부도 순위가 상승한 환경과학 분야가 세계 300위권 초반, 물리·천문학이 300위권 초반에 오르며 학문 분야별 경쟁력을 자랑했다.

한편, 이번에 평가된 전체 54개 세부 학문 분야 중 전북대는 총 11개 분야가 세계 순위권에 진입해 국가거점국립대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평가는 2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200위권에 오르는 등 우리대학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우리대학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에 더욱 힘써 임기 중 최소 5개 이상의 학문 분야가 세계 10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지역민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게 정감있는 복지를 실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는 캠퍼스 텃밭을 올해도 분양한다.

전북대 캠퍼스 텃밭 올해도 분양

119구획 분양... 6일까지 신청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역민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게 정감있는 복지를 실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는 캠퍼스 텃밭을 올해도 분양한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온 캠퍼스 텃밭은 올해 역시 농생대 부속농장 실습장 부지는 1,456㎡ 면적에 모두 114구획과 2개가 1구획으로 구성된 텃밭 상자 5개 구획을 분양한다.

이 중 98개 구획은 시민 등에 추첨을 통해 분양되고, 나머지 2개 구획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특별 분양한다.

텃밭 분양 신청은 지난달 31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신청서를 전북대 홈페이지(www.jnu.ac.kr) 교내공지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agriculture123@jnu.ac.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추첨으로 이뤄지며, 선정 결과는 4월 13일 오전 11시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선정이 완료되면 4월 25일 오후 2시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자 및 텃밭 위치가 안내되고, 4월 28일 캠퍼스 텃밭에서 선정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리엔테이션과 봄작물 재배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대는 오리엔테이션 당일 모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개인삽과 텃밭 가꾸기 가이드 자료, 기초 농사법 교육, 현장기술지도 등을 지원한다.

양오봉 총장은 “캠퍼스 텃밭은 대학의 유류 부지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따뜻하게 동행하는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대학이 가진 여러 자원을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기전대, 재학생 대상 소비자 피해예방 이동상담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전북도,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함께 신학기 여성소비자연합복지회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이동상담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매년 신학기 초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및 어학교재 등 교육서비스 과정 홍보 후 청약철회기간(14일) 경과 시 대금 납부 독촉하는 형태의 방문판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나 취업과 고수의 보상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학자금 대출·물품 구입 강요나 환불 방해로 인해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이러한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현명한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군산대, 2022 초기창업패키지 성과 공유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달 24~25일 2022년 군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성과공유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Avon 호텔 군산에서 진행됐으며, 2022년 군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과 졸업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 2022년 군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성과공유 및 창업기업 네트워킹 둘째 날은 유관기관 창업 지원사업 안내 및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인터뷰가 진행됐다.

첫째 날 행사는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성과공유 △2022년 군

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성과 요약 △창업기업 감사패 전달식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순으로 이뤄졌다.

둘째 날 행사에서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기관 및 지원사업안내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기관 및 지원사업안내 △전북테크노파크 기관 및 지원사업안내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인터뷰가 진행됐다.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육성한 2022년 군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20개 참여기업은 총매출액 181억원, 신규고용 69명을 창출했으며, 이 중 4개의 기업이 총 13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10개의 기업이 총 12건(총 21억원대)의 R&D 등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12개의 기업이 최우수, 8개의 기업이 우수, 3개의 기업이 일반 성과를 거두었다.

(주)서주스틸 임문택 대표는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지원 덕에 투자네트워크 확대, 제품 완성도 상승 회사 운영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식근 단장은 “19년부터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74개 기업을 육성하며, 매출 535억, 고용 310명, 투자 167억원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의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